



늘 밝게 웃던 유재영 마지막도 웃으며 떠나...

위암 투병 끝 가족들 곁에서 생 마감

가수 유재영(41·본명 김수진·사진)이 생전 보여준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암세포와 힘겹게 싸우면서도 자신을 아끼는 이들을 위해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무대를 곳곳이 지키려 애썼다.

지난달 10월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암세포가 다른 장기들로까지 전이돼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유재영은 무대에 대한 애정과 삶을 향한 애착을 놓지 않았다. 방송 출연 횟수는 줄었지만, 자신을 찾는 행사 무대에서는 온 힘을 쏟았다. 올해 초 한 행사에서 유재영은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고인의 병마와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1년6개월 동안 진행했던 MBC 라디오 표준FM '좋은 주말 김경식, 유재영입니다'에서 최근 하차하고 2주 전부터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21일 한때 위독한 상황을 이겨내고 안정을 되찾으면서 김창렬, 박명수, 정준하, 김미연 등 동료 연예인들은 물론 많은 팬들이 그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유재영은 24일 오전 8시 남편과 가족들 곁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연기자 김현주를 비롯해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도 유재영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다. 오전 11시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빈소가 차려진 뒤 영정 속에서는 고인이 늘 그랬듯,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 특유의 활달하고 쾌활한 웃음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다.

이날 빈소에는 고인과 함께 DJ를 맡았던 김경식이 가장 먼저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채정안, 김제동, 신봉선, 박준형·김지혜 부부 등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장례는 기독교식 3일장으로 진행되며, 발인은 26일 오전 7시40분. 고인의 시신은 인천 화장장에서 화장 후 인천 가족공원 서현추모공원에 안치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꽃보다 청춘'도 만개할까?

tvN '꽃보다...' 연령 낮추고 새 도전
첫 방송은 윤상·유희열·이적 페루편

케이블채널 tvN의 해외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청춘'(사진)이 '꽃보다' 시리즈의 인기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초점은 전편보다 낮아진 출연진 연령과 그들의 돈독한 관계에 쏠린다. '꽃보다 청춘'은 8월1일 밤 9시50분 윤상·유희열·이적의 남미 페루 편을 시작으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유연석·손호준·바로(B1A4)의 아시아 라오스 여행을 방송한다. 편당 4주 동안 내보낼 예정이다.

'꽃보다' 시리즈는 지난해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이 나선 여행지에서 겪는 고초와 추억을 생생히 담아낸 '꽃보다 할배'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어 '꽃보다 누나'로 윤여정을 비롯해 김자옥·김희애·이미연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기회가 드물었던 여배우들의 이야기로 재미를 봤다.

'꽃보다 청춘'은 그 제목에 걸맞게 전 시리즈물보다 출연진의 연령이 낮아졌다. 또 출연진의 평소 인연을 주요 컨셉으로 내걸어 20년지기 윤상·유희열·이적과, '응답하라 1994'로 인연을 맺은 유연석·손호준·바로의 이야기로 펼친다. 연출자 나영석 PD는 "청춘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을 생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를 떠올리면서 이들이 적역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큰 재미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돌직구

'라디오스타' 연애청문회장 전략

송창의 초대해 전 여친 리사 집중질문
최연진 스토킹 이어 또 사생활 들추기
출연자들 '섭외때와 다른 질문 곤란'
시청자도 "시청률 의식한 과욕" 비난

통쾌한 '돌직구' 화법으로 사랑 받은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가 최근 게스트들의 '연애 청문회장'으로 전략했다. 지적 속에 잇달아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시청자가 궁금해 하던 스타의 이야기를 김구라, 윤종신 등 MC들 특유의 직설적인 입담으로 풀어내던 '라디오스타'는 출연 게스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들추기를 비롯해 옛 연애사와 특정 대상을 웃음거리로 만들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3일 방송에서는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흥보차 연기자 송창의, 조정석, 오종혁, 장승조가 출연했다. 하지만 뮤지컬 얘기는 잠시, 송창의와 오종혁의 연애사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김구라는 송창의의 전 여자친구 리사의 소속

사 거취 문제와 집안 환경까지 거론했고 송창의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오종혁 역시 여자친구인 티아라 소연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 없었다.

방송 후 리사와 소연은 의도치 않게 인터넷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결국 리사는 24일 트위터에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웃기지 않아요"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국 방송에 출연하지도 않은 대상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특정인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앞서 '라디오스타'는 연기자 최연진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몰래 하숙집에 들어가 스토킹을 한 경향이 나, 한정수의 전 여자친구들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 등을 자세히 캐물어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아역 특집에 출연한 중학생 김유정에 연애 경험 등을 물어 지나치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라디오스타'가 과거에 비해 게스트들의 연애사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두고 '시청률을 의식한 과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라디오스타'

는 수요일 심야 예능프로그램 중 독보적인 위상을 지켜왔다.

하지만 9일부터 KBS 2TV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가 금요일에서 수요일 밤으로 편성 시간을 옮기며 '라디오스타'와 시청률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고, 지난달 11일 첫 방송된 SBS '도시의 법칙'인 뉴욕'도 입소문을 타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청자 이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결국 '라디오스타'는 시청률 확보를 위한 과도한 사생활 집착과 MC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 등이 구실에 오르는 자충수를 든 셈이었다.

최근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한 가수 측은 "섭외할 때는 특정한 콘셉트가 있는데 막상 사전 인터뷰나 녹화 때는 연애, 사생활, 과거사 등에 관한 질문이 많아 곤란할 때가 있다"면서 "녹화 후 편집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그대로 방송될 경우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가 어렵다"면서 자극적인 토크로 변질되어가는 '라디오스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MBC '라디오스타'가 출연자들의 과도한 연애사 들추기로 시청자 비판을 사고 있다. 사진은 23일 게스트로 출연한 송창의와 조정석(오른쪽)과 진행자 김구라, 윤종신(아래), 이야기 나누고 있는 MC들과 게스트들(맨 아래). 사진제공 | MBC



여배우들 '고소영이 만든 옷'에 빠졌다

'연애보다...' 한그루·한선화 단골옷
패셔니스타 손꼽히는 스타들도 관심

배우 고소영이 자신만의 '트렌드 세터' 감각으로 패션을 주도하고 있다. 연예계에서 옷 잘 입기로 유명한 여자 스타들이 각종 행사와 출연 중인 드라마에 고소영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 부활'을 이끌고 있는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연애보다 결혼'의 주인공 한그루(사진)와 한선화(사진)는 고소영이 디자인한 옷을 매번 입고 등장한다. 방송 이후 두 사람의 패션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은 해당 드라마의 시청자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과 함께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의 이유리를 비롯해서 연기자 이민경과 강소라 등도 '연애보다 결혼'의 한선화가 선택한 오픈 숄더 블랙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모두 화려한 디자인에 세련된 감각을 드

러내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다. 앞서 고소영은 지난해 패션브랜드 'K O SO YOUNG'을 론칭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브랜드인 만큼 디자인은 물론 총괄 디렉터로 참여하며 꿈을 듣고 있다.

24일 고소영 측에 따르면 '고소영의 옷'은 정식 매장도 없고, 서울의 한 편집숍에서 소량의 제품만 판매하고 있지만 일반 고객뿐 아니라 평소 패셔니스타로 꼽히는 스타들까지 옷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소영이 자신이 입을 옷이라고 생각해 만든 옷이라 더 관심을 더 받는 것 같다"면서 "현재 고소영이 패션 외에도 자기작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조만간 드라마 연애화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태용 감독·탕웨이 최근 스웨덴서 결혼식"



올해 가을 결혼한다고 선언했던 중국 배우 탕웨이(오른쪽 사진)와 김태용 감독(왼쪽 사진)이 스웨덴에서 소박한 웨딩마치를 올렸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모은다. 한 온라인 매체는 24일 "두 사람이 최근 스웨덴 포피섬에서 지인 몇 사람만 참석한 자리에서 결혼 의식을 치렀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의 아티스트 요나스 홀름버그의 SNS를 인용하며 "앤드레아스가 탕웨이와 김태용의 결혼식 축가를 연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용 감독의 한 측근은 "결혼식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 감독이 귀국하는대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탕웨이는 모 예음로랜드 행사에 참석해 스웨덴 포피섬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24일 중국 여러 매체가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장훈, 단원고 이보미양 '거위의 꿈' 듀엣영상 공개

가수 김장훈과 세월호 희생자인 경기 안산 단원고 고 이보미 양의 '거위의 꿈' 듀엣 영상이 공개됐다. 김장훈은 23일 유튜브에 이보미 양이 생전 불렀던 '거위의 꿈'에 자신의 목소리를 따로 추가해 듀엣곡처럼 제작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100일이 지나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세월호를 모든 국민이 잊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고 밝혔다. 김장훈과 이보미 양이 함께 부른 '거위의 꿈' 본편은 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00일 추모문화제'에서 상영돼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이날 추모문화제 김장훈과 함께 이승환, 자전거탄풍경 등 가수들과 함민복 등 시인들이 참여했다.

JYJ 새 앨범에 美 팝스타 크리스 브라운 곡 실려

29일 발표하는 그룹 JYJ의 새 앨범에 미국의 팝스타 크리스 브라운의 곡이 실린다. 24일 씨제이 엔터테인먼트는 "JYJ의 정규 2집 '저스트 어스'에 미국 아티스트 크리스 브라운의 곡 '발렌타인'을 실는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미국 LA의 한 스튜디오에서 녹음 작업을 마쳤다. '발렌타인'의 프로듀서 로니 배리얼은 "JYJ가 아닌 다른 가수가 이 곡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기대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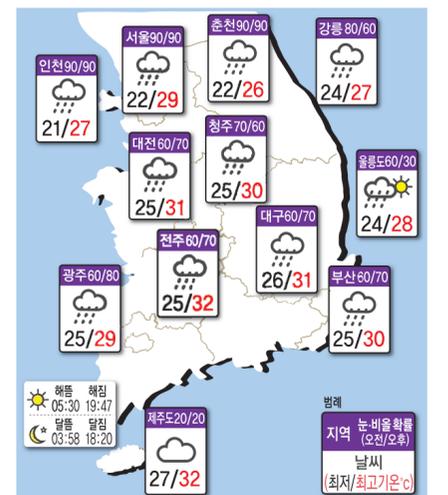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오늘 막 내려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25일 오후 7시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폐막한다. 폐막식 사회는 오승훈, 이지애 아나운서가 맡았다. 폐막작은 이권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 '내 연애의 기억'이며, 감독과 주연배우 송새벽, 강예원이 폐막식에 참석한다. 부천 초이스 장편부문 심사위원 조민수를 비롯해 에릭 마티, 탐 다비아, 디에고 마랍비오 아라비아 등 해외 게스트들도 대거 참석하며 5개 부문 13개상 시상도 진행된다. 이후 26일과 27일 영화제 기간 관심 받은 작품을 재상영하는 '피파러쉬'가 이어진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김청호 기자 minigram@donga.com

오늘의 날씨

7월 25일 금요일 (음력 6월 29일)



www.sportsdonga.com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주)110-715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계천로 1
인쇄인 최영호 스포츠1부 02 2020 1044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편집인 이선숙 02 2020 1041 2008년 3월 24일 창간
편집국장 양성동 02 2020 1074 연태인연동부 02 2020 1074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광고국장 이숙영 사진부 02 2020 1068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